

2013년 11월 고용동향과 시사점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

김복순(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정재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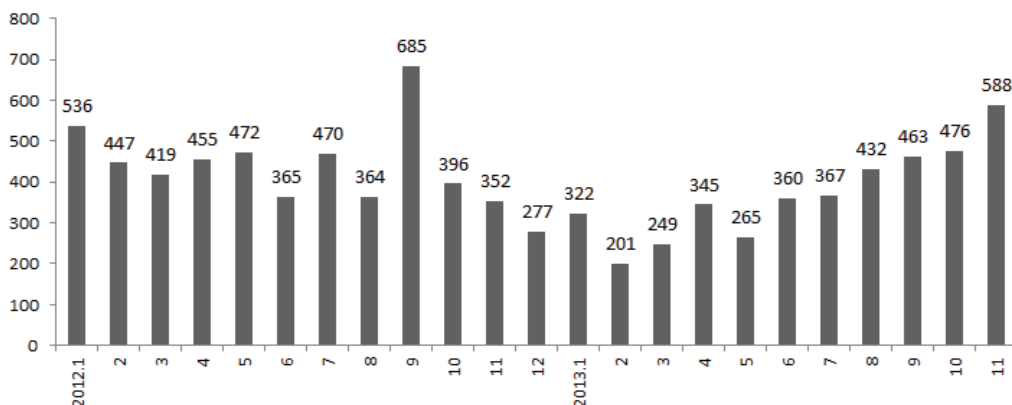
1 2013년 11월 고용동향

◎ 취업자 수 : 2012년 11월 대비 588천 명 증가

- 2013년 2월 20만 1천 명 이후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 추세 지속

[그림 1]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10	2011	2012	2011. 11	2012. 11	2013. 11
15 세 이 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40,590 (1.2)	41,052 (1.1)	41,582 (1.3)	41,208 (1.1)	41,775 (1.4)	42,245 (1.1)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4,748 (1.5)	25,099 (1.4)	25,501 (1.6)	25,318 (1.9)	25,652 (1.3)	26,230 (2.3)
	취업자 (증가율)	23,829 (1.4)	24,244 (1.7)	24,681 (1.8)	24,589 (2.0)	24,941 (1.4)	25,530 (2.4)
	(증가수)	(323)	(416)	(437)	(479)	(353)	(588)
	(남성)	(181)	(238)	(234)	(268)	(169)	(290)
	(여성)	(142)	(177)	(203)	(211)	(184)	(298)
	참가율 (남성)	61.0 (73.0)	61.1 (73.1)	61.3 (73.3)	61.4 (73.5)	61.4 (73.3)	62.1 (73.7)
	(여성)	(49.4)	(49.7)	(49.9)	(49.9)	(50.0)	(51.0)
	고용률 (남성)	58.7 (70.1)	59.1 (70.5)	59.4 (70.8)	59.7 (71.2)	59.7 (71.1)	60.4 (71.6)
	(여성)	(47.8)	(48.1)	0.5	(48.7)	(48.8)	(49.7)
	실업자	920	855	820	730	710	700
	실업률 (남성)	3.7 (4.0)	3.4 (3.6)	3.2 (3.4)	2.9 (3.2)	2.8 (3.0)	2.7 (2.8)
(여성)	(3.3)	(3.1)	(3.0)	(2.5)	(2.4)	(2.4)	
비경황 (증가율)	15,841 (0.9)	15,953 (0.7)	16,081 (0.8)	15,889 (-0.1)	16,123 (1.5)	16,016 (-0.7)	
15 ~ 64 세	참가율 (남성)	65.9 (77.1)	66.2 (77.4)	66.4 (77.6)	66.4 (77.7)	66.5 (77.6)	67.2 (78.0)
	(여성)	(54.5)	(54.9)	(55.2)	(55.1)	(55.3)	(56.2)
	고용률 (남성)	63.3 (74.0)	63.8 (74.5)	64.2 (74.9)	64.4 (75.2)	64.5 (75.2)	65.3 (75.7)
	(여성)	(52.7)	(53.1)	(53.5)	(53.6)	(53.8)	(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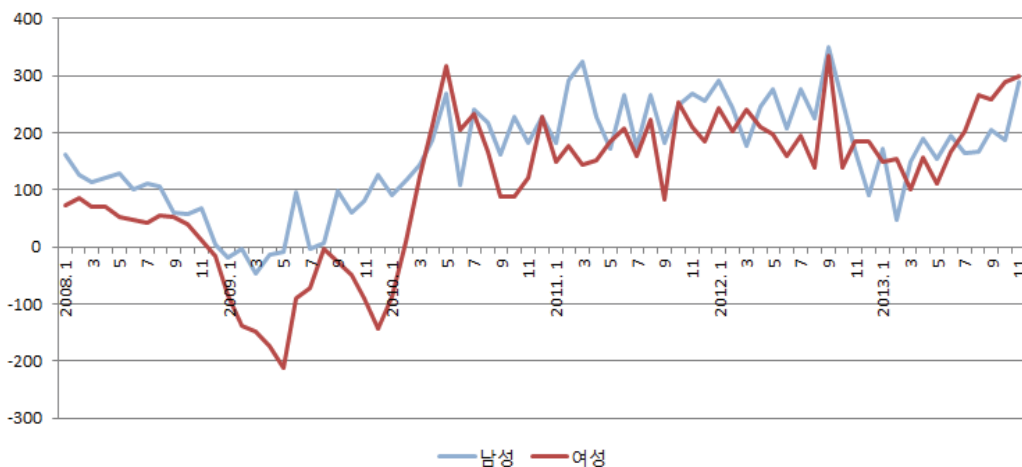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고용률: 2012년 11월 대비 0.7%p 상승
- 15~64세 고용률은 0.8%p 상승

- ◎ 실업자 수 및 실업률: 2012년 11월 대비 1만 명 감소, 실업률도 0.1%p 감소

[그림 2] 성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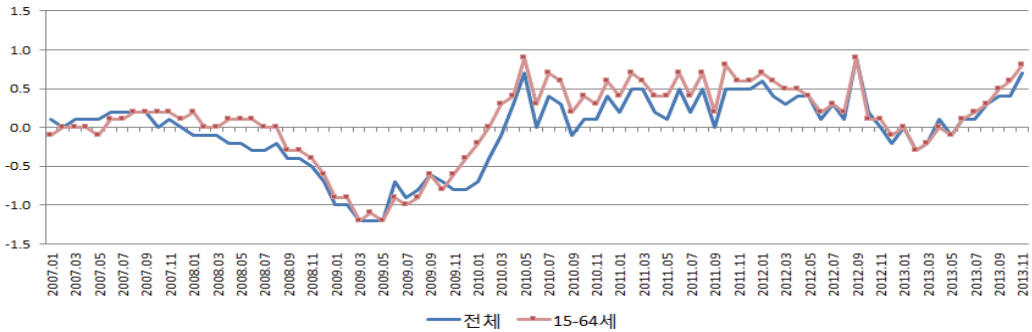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비경제활동인구: 2012년 11월 대비 10만 8천 명 감소(증가율 -0.7%)
- ◎ 고용률 증감을 전년동월대비로 볼 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2월을 저점으로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그림 3)
- ◎ 실업률은 큰 변동이 없으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13년 2월 2.5%를 정점으로 증가폭이 줄기 시작해 11월에는 -0.7% 기록(그림 4, 5)
- ◎ 이와 같은 취업자 변동은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그림 6)
 - 공공부문 취업자 수 11월 71천 명 증가, 민간부문 취업자 수 11월 517천 명 증가

[그림 3]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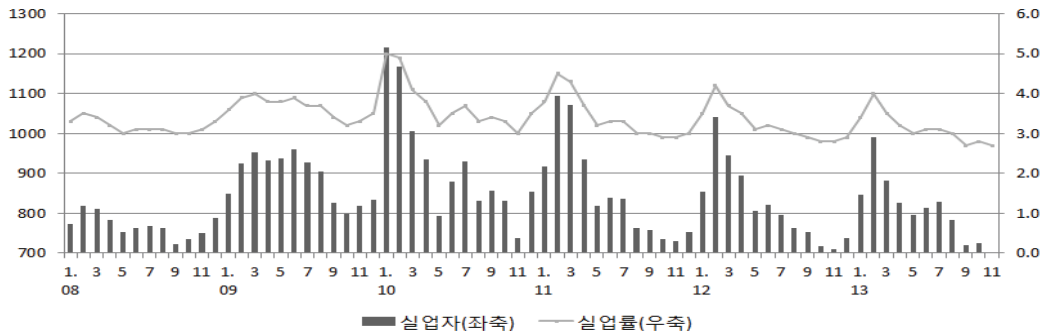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실업자,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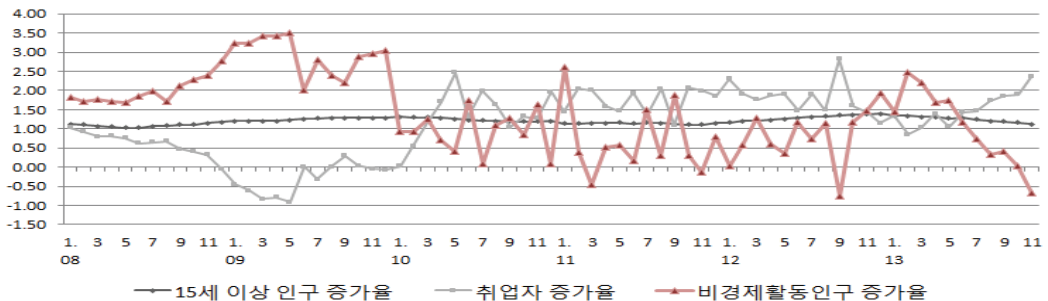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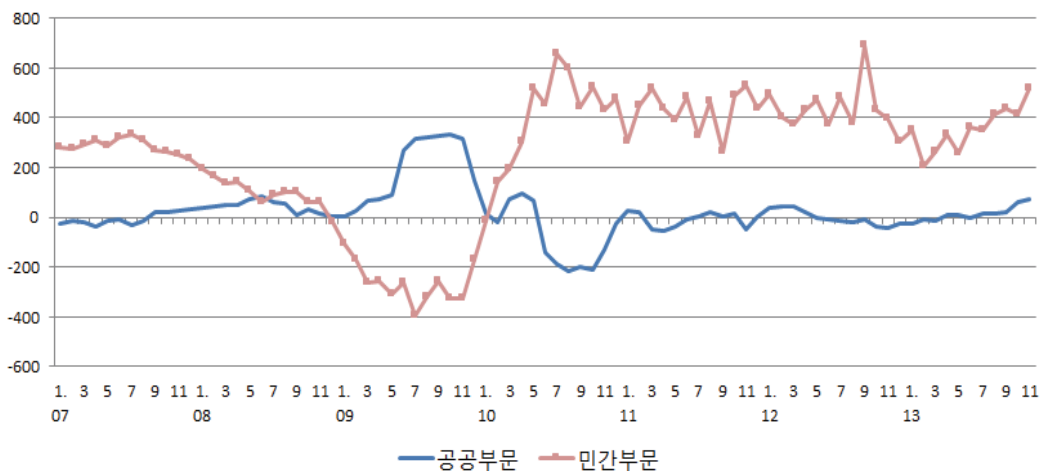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6] 부문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2013년 11월 고용동향의 부문별 특징

1. 고령층의 고용증가 주도 및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

- ◎ 2013년 11월 취업자 수 증가폭 확대는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에 더불어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54천 명 ↑) 영향
 - 11월에 2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11천 명 감소하였으며, 30대도 36천 명 감소
 -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512천 명(277천 명+235천 명) 증가

〈표 2〉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 및 전년동월대비)

(단위: 천 명)

	전년 및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생산가능인구 증감		
	2010	2011	2012	2011. 11	2012. 11	2013. 11		2013. 11	2011. 11	2012. 11
15~29세	-43	-35	-36	-36	-70	54	3,816	-127	-17	28
15~19세	27	22	4	4	9	-3	202	-6	-51	-53
20대	-69	-58	-40	-40	-79	57	3,614	-121	34	81
20~24세	-11	-11	89	-17	97	69	1,329	30	172	151
25~29세	-59	-47	-129	-23	-176	-11	2,285	-151	-139	-70
30대	-4	-47	-31	-57	-18	-36	5,764	-85	-92	-100
30~34세	45	44	79	86	87	-5	2,903	44	55	9
35~39세	-49	-91	-110	-143	-105	-31	2,860	-129	-147	-109
40대	29	57	11	42	-7	58	6,710	17	33	-18
50대	294	291	270	312	233	277	5,762	336	289	232
60세 이상	47	149	222	218	214	235	3,479	311	354	328
전 체	323	416	437	479	353	588	25,530	452	567	4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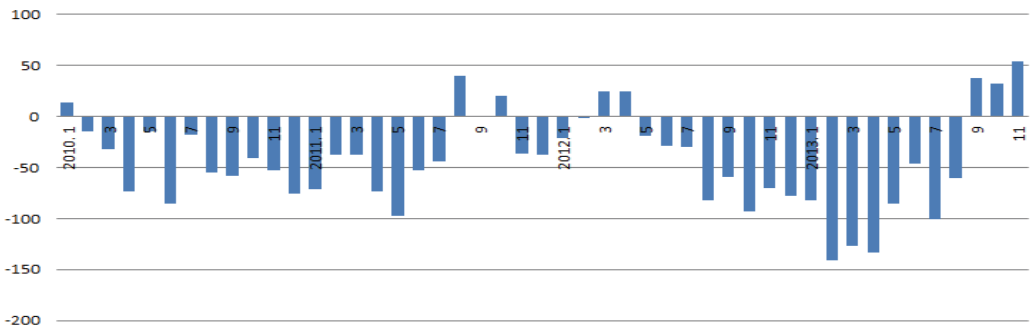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전년동월대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3개월 연속 증가

- 20대 후반의 취업자 수 감소폭이 줄어든 영향
-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15~29세 청년층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2012년 11월 39.5% → 2013년 11월 40.0%)

[그림 7] 전년동월대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성별 고용률 남성 0.5%p, 여성 0.9%p 상승

- 남녀 모두 청년 고용률 상승. 남성은 5세로 세분해 보아도 모두 상승, 여성은 20대 후반만 상승
- 30대 초반(30~34세) 남성 고용률 0.6%p 감소
- 30대 후반 이상(35세 이상) 남녀 모두 고용률 증가

〈표 3〉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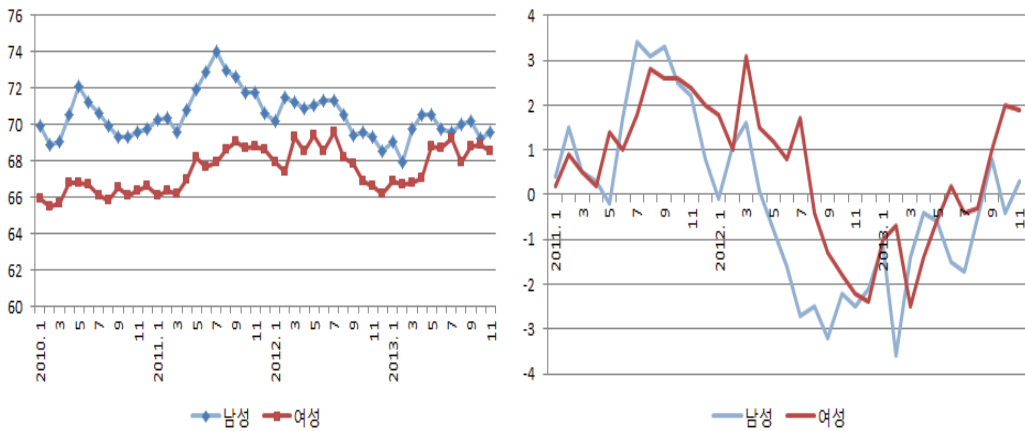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1. 11	2012. 11	2013. 11
전체	전체	58.7	59.1	59.4	59.7	59.7	60.4
	15~29세	40.3	40.5	40.4	40.2	39.5	40.0
	15~19세	6.1	6.8	7.0	5.9	6.2	6.2
	20대	58.2	58.5	58.1	58.7	57.1	57.3
	20~24세	44.3	43.5	44.5	43.5	44.3	44.3
	25~29세	68.2	69.7	69.2	70.3	68.0	69.1
	30대	72.0	72.2	72.7	72.8	73.5	73.9
	30~34세	70.6	71.0	72.2	72.3	73.5	73.2
	35~39세	73.2	73.3	73.2	73.3	73.4	74.7
	40대	77.8	78.4	78.3	78.9	78.5	79.4
	50대	70.9	71.6	72.2	72.7	73.0	74.4
60세 이상	36.0	36.5	37.5	37.7	38.7	39.9	
남성	전체	70.1	70.5	70.8	71.2	71.1	71.6
	15~29세	38.7	38.8	38.7	38.3	37.9	38.6
	15~19세	4.7	5.5	5.7	4.7	4.8	5.6
	20대	58.2	58.3	57.3	58.2	56.5	56.2
	20~24세	38.3	37.2	39.1	37.1	39.1	39.7
	25~29세	70.0	71.6	70.4	71.8	69.3	69.6
	30대	89.5	89.8	90.3	90.3	90.7	90.8
	30~34세	87.5	87.9	89.0	89.3	89.3	88.7
	35~39세	91.2	91.6	91.7	91.3	92.1	92.9
	40대	91.2	91.6	91.7	92.5	92.1	93.1
	50대	85.0	85.4	86.3	86.6	87.1	87.7
60세 이상	48.7	49.3	49.9	50.7	51.2	52.6	
여성	전체	47.8	48.1	48.4	48.7	48.8	49.7
	15~29세	42.0	42.1	42.1	42.0	41.2	41.4
	15~19세	7.7	8.1	8.3	7.2	7.8	6.9
	20대	58.3	58.7	58.8	59.2	57.8	58.4
	20~24세	48.8	48.2	48.9	48.3	48.5	48.3
	25~29세	66.2	67.8	68.0	68.8	66.6	68.5
	30대	53.7	53.7	54.5	54.5	55.7	56.6
	30~34세	52.9	53.2	54.8	54.5	57.2	57.2
	35~39세	54.3	54.1	54.1	54.5	54.1	56.0
	40대	64.2	64.9	64.6	64.9	64.6	65.3
	50대	56.9	57.7	58.1	58.8	59.0	61.1
60세 이상	26.3	26.6	27.9	27.8	29.1	3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20대 후반 연령층은 추세로 보면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률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
 - 고용률 증감 추이를 보면 2013년 초를 저점으로 그 이후 상승 추세
 - 장기 추이를 감안하면 20대 후반 여성은 경기회복이 지속될 경우 역대 가장 높은 고용률도 기대해볼 수 있음

[그림 8] 25~29세 성별 고용률(좌) 및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우) 추이

(단위: %,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9] 연령별, 성별 20대 고용률 장기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 취업자 수 증가폭의 확대는 상용직 대폭 증가, 임시 및 일용직 감소폭 축소, 자영업자 감소폭 축소(그림 10, 11 참조) 등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호전 기미가 나타나는 데에 기인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681천 명 증가에 힘입어 631천 명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22천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5천 명), 무급가족종사자(-6천 명) 감소

〈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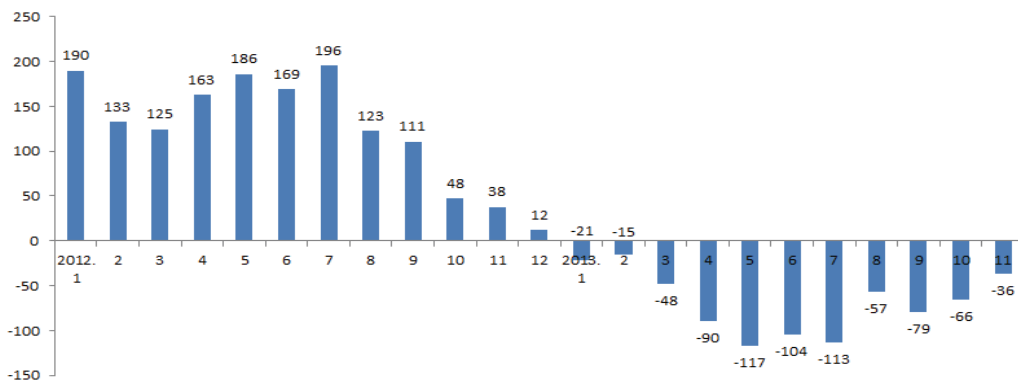
(단위: 천 명)

	2010	2011	2012	2011. 11	2012. 11	2013. 11
전 체	323	416	436	479	353	588
임금	517	427	315	349	292	631
상용직	697	575	436	505	443	681
임시직	-34	-78	-2	-22	-87	14
일용직	-146	-70	-120	-133	-64	-64
비임금	-194	-11	121	130	61	-4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8	6	43	36	-13	-2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00	-5	81	99	51	-15
무급가족종사자	-76	-12	-3	-5	23	-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0]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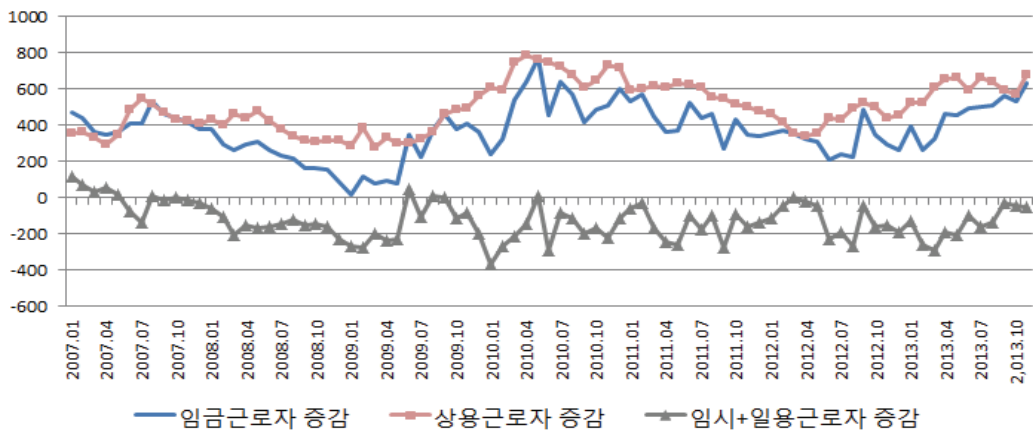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온 2010년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2012년 하반기 이래 대략 30만 명 초반대를 중심으로 변동했으나 2013년 4월부터 40만 명대로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7, 8, 9, 10월 연속 50만 명대에 이어 11월 60만 명대 기록
 - 4월 466천 명 ↑, 5월 453천 명 ↑, 6월 497천 명 ↑, 7월 503천 명 ↑, 8월 506천 명 ↑, 9월 567천 명 ↑, 10월 531천 명 ↑, 11월 631천 명 ↑
 - 2013년 3월 이후 임시·일용직도 감소폭이 둔화되어 임금근로자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

[그림 11]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연령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는 50대(215천 명 ↑), 40대(205천 명 ↑), 60세 이상(145천 명 ↑)이 주도
 - 25~29세는 상용직이 꾸준히 감소했는데, 이번 달 들어 증가세로 전환(14천 명 ↑)

〈표 5〉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 취업자 수 전년대비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증감			전년동월대비 증감		
		2010	2011	2012	2011. 11	2012. 11	2013. 11
15~24세	상용직	19	0	56	-20	72	61
	임시직	0	26	39	34	23	-15
	일용직	-8	-1	2	-13	20	8
	고용원 있는 자영자	-2	2	0	7	-6	4
	고용원 없는 자영자	5	-16	1	-13	1	-9
	무급가족종사자	2	0	-5	-8	-3	18
25~29세	상용직	18	20	-69	-12	-79	14
	임시직	-44	-57	-47	-25	-71	-43
	일용직	-12	-15	-10	-3	-6	0
	고용원 있는 자영자	-5	7	1	17	-18	-2
	고용원 없는 자영자	-13	1	-6	9	-10	18
	무급가족종사자	-4	-3	2	-8	8	1
30~39세	상용직	149	155	90	125	122	106
	임시직	-52	-90	-86	-99	-127	-59
	일용직	-55	-24	-38	-49	-30	-28
	고용원 있는 자영자	15	-11	-10	-6	-13	-15
	고용원 없는 자영자	-42	-74	20	-29	31	-29
	무급가족종사자	-20	-3	-7	2	-1	-11
40~49세	상용직	244	221	141	202	128	205
	임시직	2	-37	-39	-42	-25	-15
	일용직	-81	-53	-64	-68	-91	-12
	고용원 있는 자영자	-33	-25	5	-21	1	-28
	고용원 없는 자영자	-69	-20	-21	1	-22	-67
	무급가족종사자	-34	-28	-11	-31	3	-24
50~59세	상용직	186	141	182	149	180	215
	임시직	66	67	54	78	46	0
	일용직	8	-4	-15	-29	23	1
	고용원 있는 자영자	19	19	22	25	2	24
	고용원 없는 자영자	17	56	36	73	1	5
	무급가족종사자	-1	11	-9	15	-19	32
60세 이상	상용직	81	38	37	61	20	80
	임시직	-6	13	77	31	68	145
	일용직	2	27	5	28	21	-33
	고용원 있는 자영자	-12	15	26	15	21	-3
	고용원 없는 자영자	0	47	51	58	50	67
	무급가족종사자	-18	10	26	25	36	-2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전년동기대비 업종별 상용직 증감을 보면, 제조업(158천 명 ↑)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6천 명 ↑)의 증가가 가장 큼
 - 제조업 상용직 증가는 주로 남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용직 증가는 주로 여성에게 집중
 - 이 외에도 도매 및 소매업 113천 명 ↑, 협회 및 단체·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44천 명 ↑, 숙박 및 음식점업 42천 명 ↑, 건설업 33천 명 ↑ 순으로 나타남.
 - 상용직 증가 중 57천 명이 근속기간 3개월 미만에서 늘어 신규채용도 활발해지는 조짐이 보임. 다만, 아직 전문대졸 이상에 국한되어 있는 현상(61천 명 ↑)
 - ※ 3개월 미만 전문대졸 이상 중 30대 27천 명 ↑, 25~29세 19천 명 ↑, 15~24세 12천 명 ↑, 40대 2천 명 ↓, 50대 2천 명 ↑, 60세 이상 ↑
 - ※ 남성 20대 후반 16천 명 ↑, 여성 30대 12천 명 ↑

〈표 6〉 각 연도 11월 근속기간별·학력별 상용직 근로자 수 및 전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상용직 근로자 수				전기대비 증감			
		2010	2011	2012	2013	2010. 11	2011. 11	2012. 11	2013. 11
전체	3개월 미만	442	441	349	406	13	-1	-92	57
	1년 미만	1,458	1,518	1,637	1,693	247	61	119	56
	1~3년 미만	2,245	2,351	2,548	2,608	123	106	197	59
	3년 이상	6,189	6,528	6,747	7,256	348	339	219	509
	전 체	10,334	10,838	11,281	11,962	731	505	443	681
고졸 이하	3개월 미만	184	224	178	174	-22	40	-46	-5
	1년 미만	642	625	692	679	132	-17	67	-13
	1~3년 미만	947	947	1,014	1,081	73	0	67	67
	3년 이상	2,415	2,486	2,554	2,688	178	71	69	134
	전 체	4,188	4,282	4,439	4,622	361	94	157	183
전문대졸 이상	3개월 미만	258	217	171	232	36	-41	-46	61
	1년 미만	815	893	945	1,014	115	77	52	69
	1~3년 미만	1,299	1,404	1,534	1,526	50	106	130	-8
	3년 이상	3,774	4,043	4,193	4,568	171	269	150	375
	전 체	6,145	6,557	6,842	7,340	370	411	286	49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7〉 2013년 11월 상용직의 업종별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감	상용직 수	해당 업종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제조업	158	3,006	80.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2	79	90.6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60	81.2
건설업	33	581	41.7
도매 및 소매업	113	1,162	52.7
운수업	28	597	77.5
숙박 및 음식점업	42	254	20.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6	567	90.6
금융 및 보험업	11	526	63.8
부동산 및 임대업	12	192	53.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799	90.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9	738	66.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1	748	75.4
교육 서비스업	2	929	66.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6	1,165	76.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	107	43.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4	398	51.8
기타	8	54	16.1
전 체	681	11,962	5.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비임금 근로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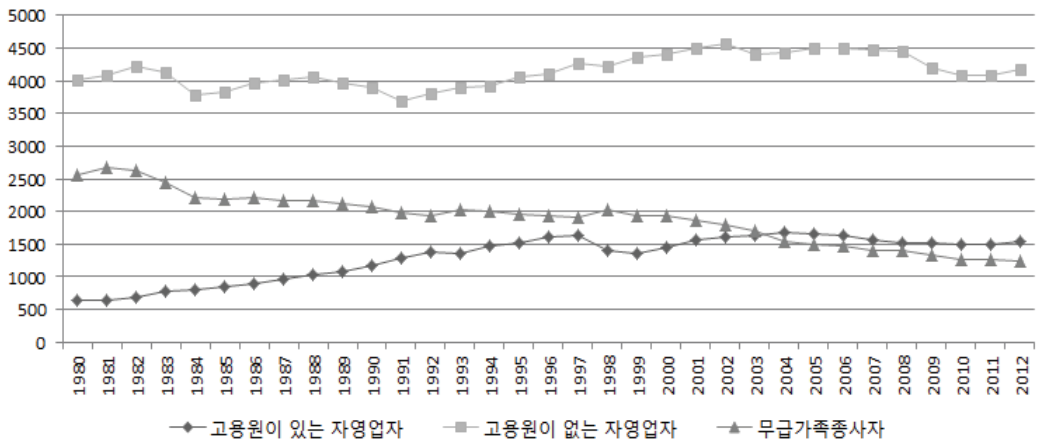
◎ 비임금근로자 규모와 장기적인 추이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400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400만 명 남짓한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후 2012년에 다소 회복세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이며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는데, 2005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단기적인 일부 등락을 제외하면 지속적이며 강한 감소 추세
- 최근의 규모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폭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반면, 고용원이 있는 경우 2005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가능

[그림 12] 비임금근로자 규모와 그 변화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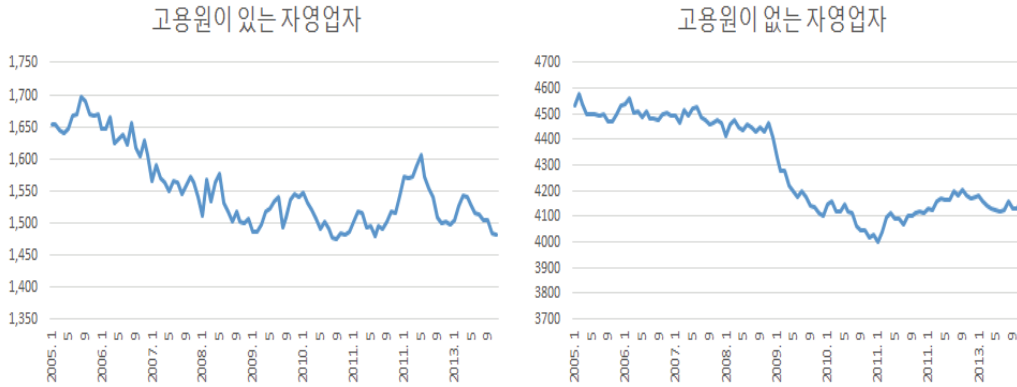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2년의 자영업자 증가 이후 2013년 상반기 조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 추세가 지속되지 않고 있음
- 전월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증가했음
 - ※ 6월 4,118천 명으로 가장 적었고, 7월 4,125천 명, 8월 4,161천 명, 9월 4,133천 명, 10월 4,130천 명, 11월 4,160천 명 기록

[그림 13] 고용원 여부별 자영업자 수 추이(계절조정)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KOSIS.

- ◎ 2013년 11월의 전년동기대비 자영업자 증감을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건설업(23천 명 ↓), 숙박 및 음식점업(16천 명 ↓) 등에서 감소하였고,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천 명 ↑)에서는 증가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32천 명 ↓) 등에서 감소하였고,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각 15천 명 ↑) 등에서는 증가

〈표 8〉 2013년 11월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감

(단위: 천 명)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영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영업자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14	58	-26	902
제조업	-12	203	-9	199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1	1	4
건설업	-23	150	-17	226
도매 및 소매업	-11	342	-32	881
운수업	2	35	12	602
숙박 및 음식점업	-16	281	15	285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	19	9	41
금융 및 보험업	1	11	0	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34	2	10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	67	-3	6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8	23	5	30
교육 서비스업	12	79	15	27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	80	-1	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	30	12	1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	86	-9	411
기타	-	-	11	13
전 체	-21	1,498	-15	4,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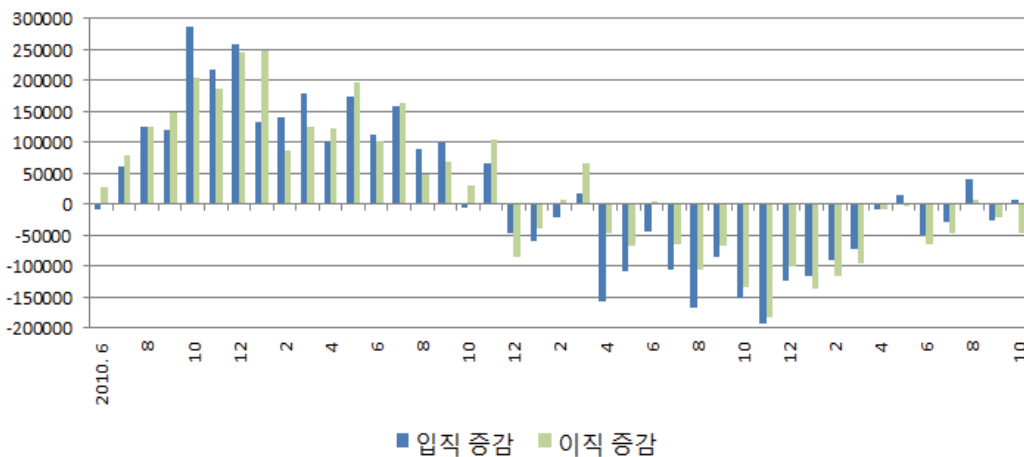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노동시장 입·이직 둔화 지속

- ◎ 노동시장의 유량(flow)은 2012년 11월 이후 감소폭이 둔화되어 왔음
 - 경기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량이 증가로 전환될지 분명치 않은 상태

[그림 14] 임금근로자 입직자 수, 이직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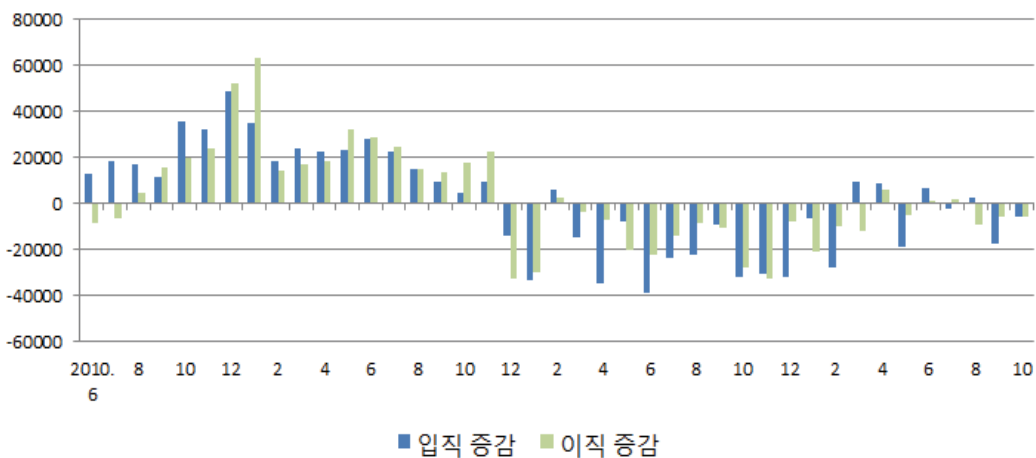
(단위 :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

[그림 15] 제조업 임금근로자 입직자 수, 이직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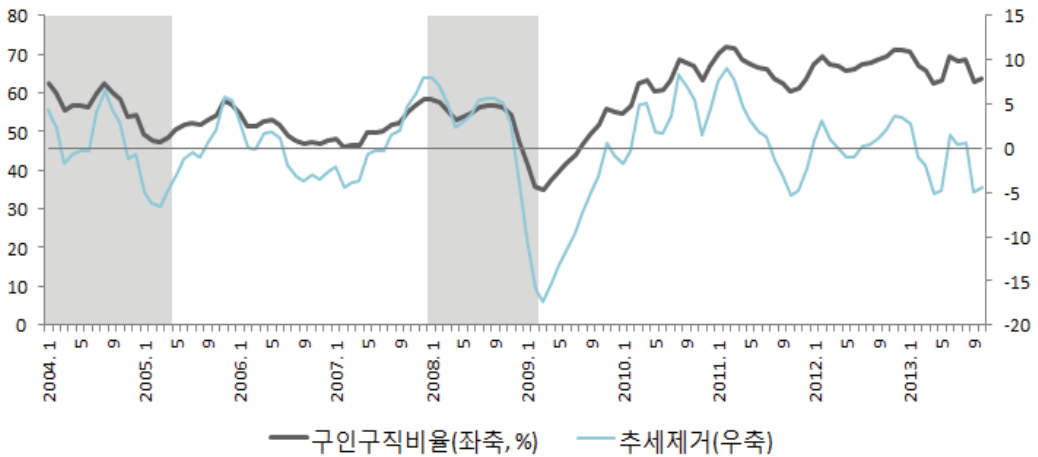
(단위 :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

- ◎ 노동시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구인구직비율의 최근 추이를 보면 2012년 11월 71.2로 상승했으나 그 이후 다소 하락해 2013년 5월 63.1을 기록했고, 10월에도 63.6으로 여전히 주춤하고 있는 상태

[그림 16] 구인구직비율 추이(계절조정)



주: 통계청이 한국고용정보원의 구인구직비율에서 계절변동, 불규칙 변동요인을 제거한 계열임. 추세제거치는 이 계열에서 HP 필터를 이용해 장기추세를 제거한 것임. 음영은 통계청 경기순환 기준순환일의 경기수축기임.

자료: 통계청, KOSIS.

5. 사업체 특성에 따른 취업자 변화

◎ 2013년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588천 명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고용증가세가 주도

- 제조업은 2013년 상반기 동안 평균 120천 명이 넘는 증가세를 보임. 제조업 고용증가폭은 2013년 4월 정점(165천 명 ↑)에 도달한 이후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8월 5천 명 증가에 머물렀으나 10월, 11월 각각 31천 명, 35천 명 증가하면서 증가폭이 소폭 확대되는 양상

※ 제조업 고용증감

120천 명 ↑('13.1~6) - 5천 명 ↑('12.8) - 21천 명 ↑('13.9) - 31천 명 ↑('13.10) - 35천 명 ↑('13.11)

- 서비스업 고용증가폭은 11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596천 명 증가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 서비스업 고용은 2012년 9월(466천 명 ↑) 정점에 도달한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2013년 3월(156천 명 ↑) 저점을 찍은 후 고

용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

- [그림 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는 2013년 3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

※ 서비스업 고용증감

156천 명 ↑(13.3) - 262천 명 ↑(13.6) - 395천 명 ↑(13.9) - 432천 명 ↑(13.10)
- 596천 명 ↑(13.11)

- 서비스업 고용증가폭 확대는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18천 명 ↑)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숙박업의 고용증가폭이 크게 확대(133천 명 ↑). 2012년 10월부터 감소세를 보였던 도소매업의 고용이 2개월 연속 증가세

〈표 9〉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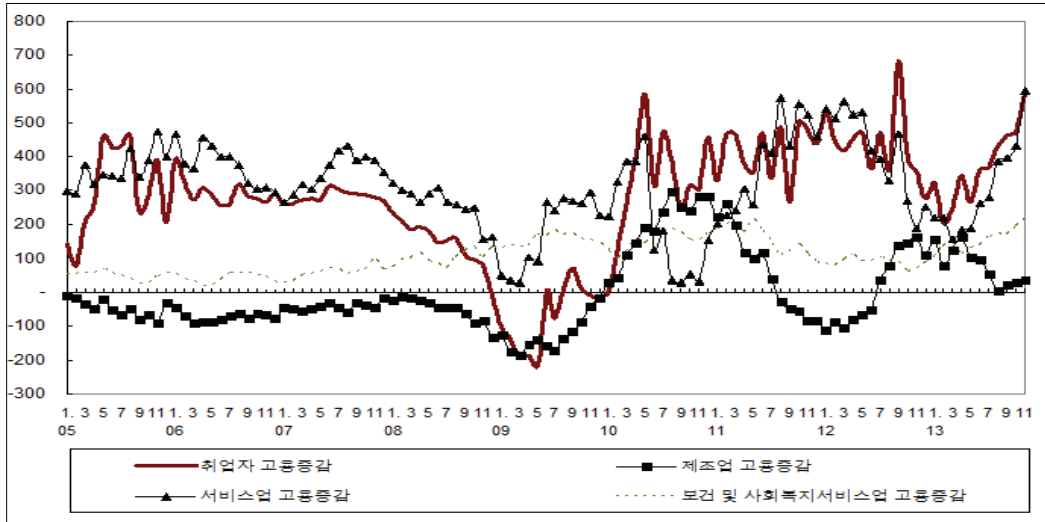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11	2012. 11	2013. 11
취업자 전체	323	415	436	479	353	588
농림어업	-82	-25	-14	-12	25	-31
건설업	33	-2	22	66	-35	-18
제조업	191	63	14	-85	164	35
서비스업	200	386	416	525	187	596
도소매업	-20	58	51	109	37	14
운수업	33	52	48	64	45	38
음식숙박업	-47	-36	53	-10	41	133
출판, 영상 등	16	35	-3	52	-51	11
금융보험업	42	38	-4	56	-28	12
부동산, 임대업	17	-31	-0	-33	-0	21
전문 과학 등	40	77	67	67	49	-16
사업시설관리 등	78	64	30	47	38	29
공공행정 등	-71	-9	-0	-49	-43	71
교육서비스업	-33	-113	58	-20	16	30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5	158	88	113	71	218
공공	-71	-9	-0	-49	-43	71
민간	395	424	436	528	396	51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7]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2013년 11월 현재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고용증가세 지속

- 11월 현재 중소기업의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483천 명 증가하여 2012년 11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2013년 상반기에 166천 명 증가한 반면, 하반기 (7~11월 평균)에는 363천 명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폭이 확대되는 추세
-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신규채용은 2013년 9월, 10월 각각 112천 명, 63천 명 증가하였으나 11월 현재 17천 명 감소
-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105천 명 증가. 대규모 사업체에서 고용은 2013년 상반기 동안 125천 명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고용증가폭이 둔화되다가 11월 현재 105천 명 증가하면서 고용증가폭이 확대되는 양상. 더불어 대규모 사업체에서 신규채용은 6개월 연속 증가

〈표 10〉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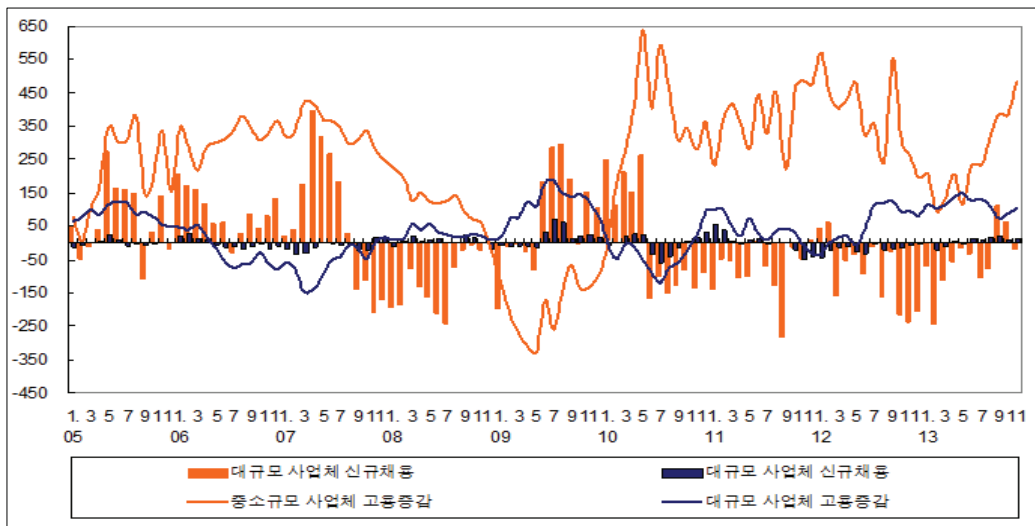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11	2012. 11	2013. 11
취업자 전체		323	415	436	479	353	588
사업체 규모별	중소규모 사업체	354	378	381	486	258	483
	1~5인	-49	105	217	346	116	101
	5~9인	127	56	100	19	129	73
	10~29인	95	123	85	129	28	88
	30~99인	155	-15	-6	-78	-17	225
	100~299인	26	108	-15	70	2	-3
	대규모 사업체	-31	37	55	-7	95	105
신규채용	중소규모 사업체	12	-81	-90	-47	-238	-17
	대규모 사업체	-2	0	-18	-46	-7	1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8]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 및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규모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1〉 사업체 규모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11	2012. 11	2013. 11
취업자 전체		323	415	436	479	353	588
중소규모 사업체		354	378	381	486	258	484
지위별	상용직	695	537	355	486	332	586
	(신규채용)	59	26	-3	11	-93	51
	자영업자	-118	1	124	135	38	-36
산업별	제조업	206	76	-41	-37	48	11
	서비스업	200	329	417	482	214	521
	음식숙박업	-52	-40	54	-11	44	129
	공공행정 등	-63	-23	5	-61	-22	66
	보건 및 사회복지	156	151	89	112	73	191
대규모 사업체		-31	37	55	-7	95	105
지위별	상용직	2	37	81	18	111	95
	(신규채용)	8	3	-1	-12	1	6
연령별	20대	-18	19	-20	-15	-25	13
	30대	-35	-6	52	-5	105	7
산업별	제조업	-14	-13	55	-48	116	25
	서비스업	-0	57	-1	43	-26	74
	교육서비스업	9	-9	9	3	10	12
	보건 및 사회복지	-2	7	-1	1	-2	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직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보건 및 사회복지 종교관련직 (24)과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44)의 고용증가
 - 직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246천 명 ↑), 사무직(161천 명 ↑)의 고용증가폭 이 2012년 11월에 비해 컸으며, 2013년 상반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161천 명 증가 하면서 고용증가세를 이끌었던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11월 현재 110천 명 증가(10월 64천 명 ↑)

〈표 12〉 직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11	2012. 11	2013. 11
취업자 전체	323	415	436	479	353	588
관리자	16	-47	-51	-77	-52	-28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45	114	106	133	64	246
사무종사자	150	252	108	174	33	161
서비스종사자	-85	35	77	81	50	81
판매종사자	-55	-39	114	53	130	1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83	-22	6	-17	32	-14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53	12	29	61	-12	-5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20	69	99	44	134	110
단순노무종사자	62	42	-52	29	-27	7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2013년 11월에도 상용직 증가세는 지속, 상용직 신규채용 3개월 연속 증가
 - 11월 현재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681천 명 증가함으로써 최근 고용증가세를 견인
 - 상용직 신규채용 또한 9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폭도 확대(9월 35천 명 ↑, 10월 49천 명 ↑, 11월 57천 명 ↑)되고 있으며 20대(5개월 연속)~30대(3개월 연속) 연령층을 중심으로 증가
 - 특히 2011년 11월부터 감소세를 유지해왔던 25~29세 연령층에서 상용직이 증가. 또한 이들 연령층에서 상용직으로 신규채용은 8월부터 증가하여 11월 현재 22천 명 증가
 - 산업별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6천 명 ↑), 제조업(158천 명 ↑), 도소매업(113천 명 ↑), 음식숙박업(42천 명 ↑)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도소매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신규채용 증가

〈표 13〉 상용직의 사업체 특성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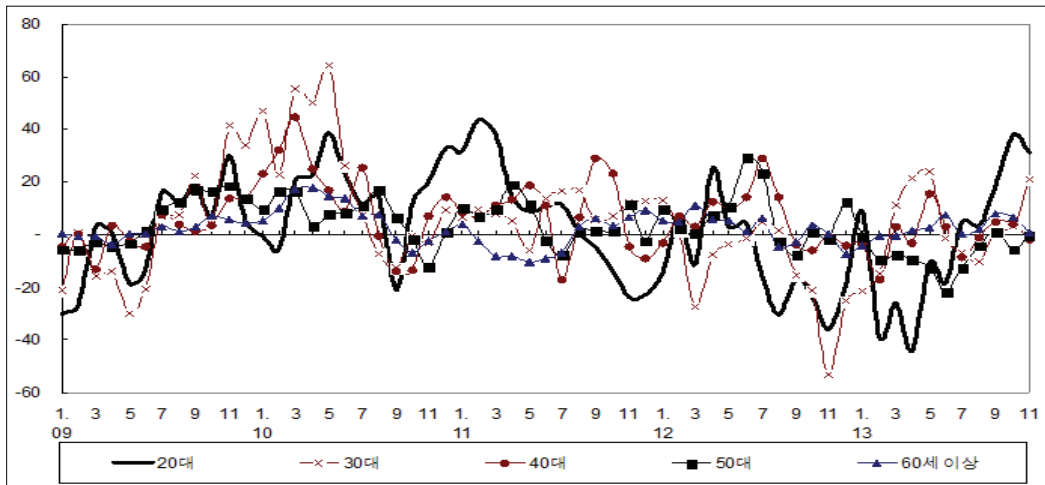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11	2012. 11	2013. 11
상용직 전체		697	574	436	505	443	681
(신규채용)		66	29	-5	-1	-92	57
연령별	20대	30	19	-17	-33	-10	71
	(신규채용)	14	8	-11	-24	-36	31
	30대	149	155	90	125	122	106
	40대	244	221	141	202	128	205
	50대	186	141	182	150	181	215
	60대	81	38	37	61	20	80
산업별	제조업	184	110	84	-25	178	158
	서비스업	502	475	345	536	259	482
	도소매업	68	107	51	116	30	113
	(신규채용)	10	5	-3	0	-8	-4
	음식숙박업	26	25	5	4	30	42
	보건 및 사회복지	110	130	112	99	119	146
규모별	중소규모 사업체	695	537	355	486	332	586
	대규모 사업체	2	37	81	18	111	9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9〕 상용직의 연령별 신규채용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은 11월 현재 감소했으나 상용직의 신규채용은 3개월 연속 증가
- 2013년 11월 현재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은 전년동월대비 6천 명 감소했으며, 이는 제조업, 중소기업 사업체에서 기인
 - 주로 제조업(17천 명↓)과 사업시설관리(32천 명↓), 금융보험업(15천 명↓)에서 감소. 반면 11월 고용증가폭이 컸던 음식숙박업에서 신규채용은 35천 명 증가(상용직 10천 명↑, 임시·일용직 25천 명↑)

〈표 14〉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11	2012. 11	2013. 11
임금근로자	전 체	517	426	315	349	292	631
	3개월 미만	10	-81	-108	-93	-245	-6
	제조업	26	-11	-21	-8	-28	-17
	서비스업	-10	-44	-62	-109	-213	29
	중소규모 사업체	12	-81	-90	-47	-238	-17
	대규모 사업체	-2	0	-18	-46	-7	11
	보건 및 사회복지	17	13	-4	-3	-13	9
	3개월~1년 미만	171	-48	17	-43	12	138
	1년 이상	336	556	406	485	525	499
상용직	전 체	697	574	436	505	443	681
	3개월 미만	66	29	-5	-1	-92	57
	제조업	18	8	-7	2	-32	27
	서비스업	46	23	4	-9	-57	26
	중소규모 사업체	59	26	-3	11	-93	51
	대규모 사업체	8	3	-1	-12	1	6
	보건 및 사회복지	8	13	3	-14	3	9
	3개월~1년 미만	240	80	73	61	119	56
	1년 이상	390	466	368	445	416	568

주: 신규채용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간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5〉 임금근로자의 산업별 신규채용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11	2012. 11	2013. 11
신규채용 전체	10	-81	-108	-93	-245	-6
건설업	-6	-28	-12	17	-3	3
제조업	26	-11	-21	-8	-28	-17
서비스업	-10	-44	-62	-109	-213	29
도소매업	2	-1	-20	15	-62	7
운수업	-7	-1	-4	-8	-3	9
음식숙박업	-5	-10	-3	-11	-41	35
출판, 영상등	-4	7	-18	4	-20	10
금융보험업	2	-2	1	-9	-3	-15
부동산, 임대업	-3	-6	1	-7	2	-3
전문, 과학 등	6	7	-4	22	-33	6
사업시설관련 등	22	-1	5	8	4	-32
공공행정 등	-27	-35	-10	-129	1	-3
교육서비스업	-7	-13	-5	-3	-31	5
보건 및 사회복지	17	13	-4	-3	-13	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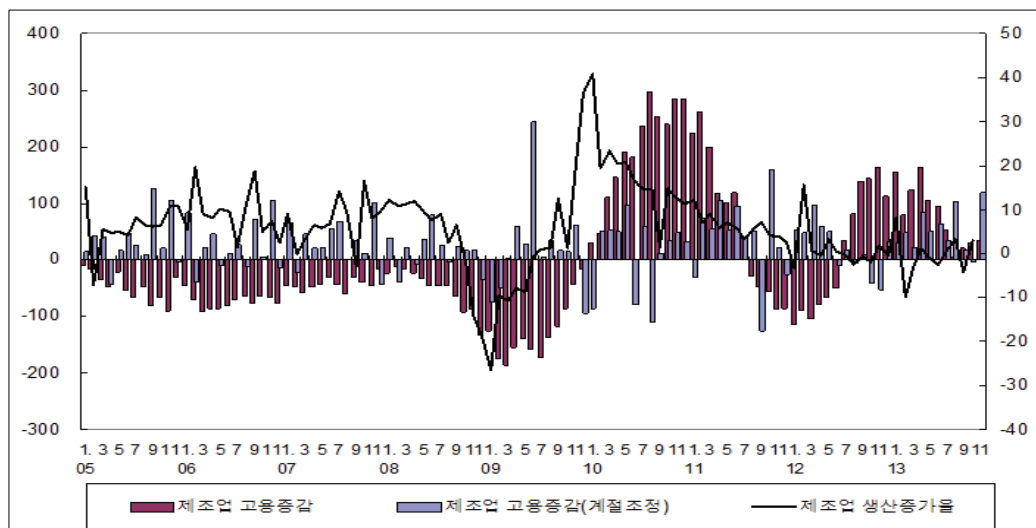
(1) 제조업 부문 : 생산·내수·수출 증가, 고용은 소폭 증가

- ◎ 제조업 부문의 생산증가율은 2013년 10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하였으며, 내수, 수출 모두 각각 3.7%, 2.1% 증가
 - 그러나 제조업 고용은 2013년 10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31천 명 증가(11월 현재 35천 명 ↑,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118천 명 ↑)
- ◎ 2012년 7월부터 제조업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11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35천 명 증가
 - 제조업 고용은 2013년 상반기 동안 120천 명 증가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고용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어 29천 명(7~11월 평균) 증가에 불과. 그러나 7월(5천 명 ↑) 저점을 찍은 후 차츰 고용증가폭이 확대되는 양상

- 제조업은 상용직(158천 명 ↑)을 제외한 다른 종사상지위에서 모두 고용이 감소
- 특히 25~29세, 40대 연령층에서의 고용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며,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201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고용이 감소(8천 명 ↓)

[그림 20] 제조업 고용증감 및 생산증가를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6〉 제조업 취업자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11	2012. 11	2013. 11
제조업 취업자 전체		191	63	14	-85	164	35
지 위 별	임금근로자	162	69	40	-67	186	71
	상용직	184	110	84	-25	178	158
	임시직	4	-37	-18	-31	19	-60
	일용직	-26	-4	-26	-11	-10	-26
	비임금근로자	29	-6	-26	-18	-22	-36
	자영업자(고용원있는)	11	2	-7	-10	-11	-12
	자영업자(고용원없는)	-4	-3	-6	6	-8	-9
	무급가족종사자	22	-5	-12	-14	-3	-15
연 령 별	20~24세	11	-16	13	-43	27	19
	25~29세	13	-4	-38	-35	-24	-47
	30대	12	-0	-23	-51	64	57
	40대	38	20	-3	6	15	-64
	50대	92	46	49	25	60	78
	60세 이상	19	15	16	14	22	-8
규 모	중소규모 사업체	205	76	-41	-37	48	11
	대규모 사업체	-14	-13	55	-48	116	2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2) 서비스업 부문: 생산과 고용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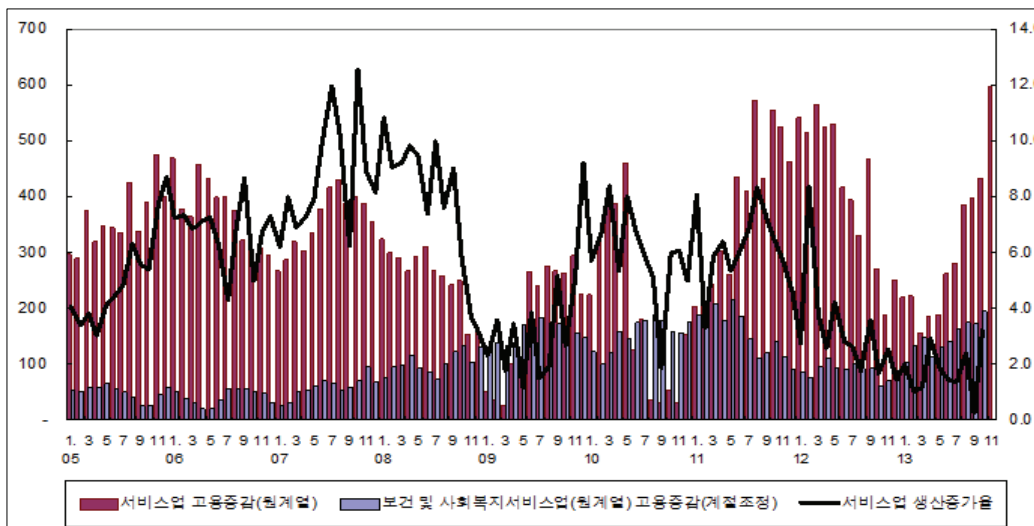
- ◎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은 2013년 10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 서비스업 고용은 2013년 10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432천 명 증가(11월 현재 596천 명 ↑,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6천 명 ↓)

- ◎ 2013년 11월 현재 서비스업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596천 명 증가함으로써 최근 고용 증가세 견인
 - 서비스업 부문 고용증가폭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2013년 3월 저점(155천 명 ↑)에 도달한 이후 고용증가폭 확대되는 양상

- 2013년 11월 현재 서비스업 부문 고용증가는 상용직의 증가 추세와 더불어 임시직과 자영업자의 고용증가에 기인
- 특히 서비스업 부문 임시직은 2012년 7월부터 감소세였으며 2013년 상반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130천 명 감소한 반면, 11월에 들어서 74천 명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 증가
- 자영업자 또한 11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38천 명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고용증가.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3년 3월부터 감소세였다가 11월에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며 11월 자영업자의 고용을 주도(38천 명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주로 음식숙박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에서 증가
- 서비스업 부문 고용은 여성(340천 명 ↑)이 주도하고 있으며, 남성의 고용증가폭도 크게 확대(256천 명 ↑). 여성은 주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집중된 반면, 남성은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운수업, 음식숙박업에서도 고용증가 폭이 확대. 또한 제조업에서는 25~29세 연령층의 고용이 감소세인 반면, 서비스업에서 이들 연령층 고용은 4개월 연속 증가

[그림 21] 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증감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를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7〉 서비스업 특징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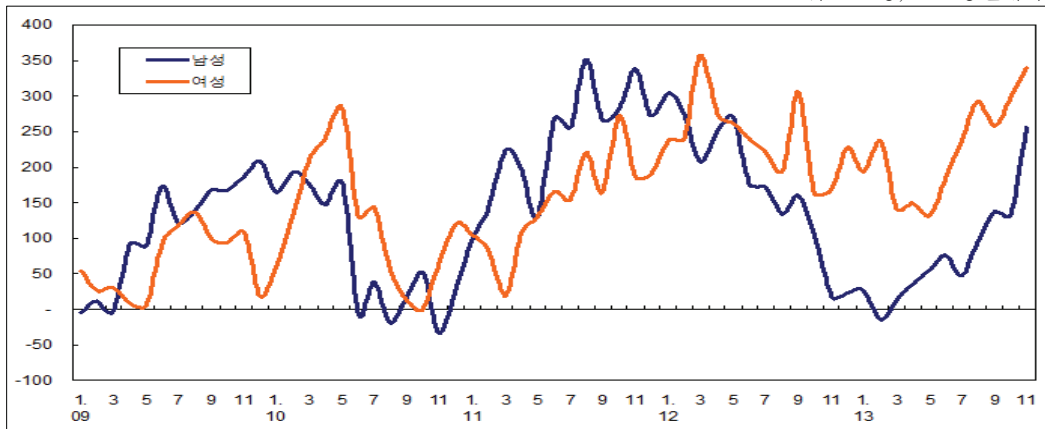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11	2012. 11	2013. 11
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200	386	416	525	187	596
지위별	임금근로자	371	379	317	409	152	536
	상용직	502	475	345	536	259	482
	임시직	-46	-57	36	-32	-49	74
	일용직	-85	-39	-65	-94	-58	-21
	비임금근로자	-171	7	99	116	35	60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33	6	52	54	-1	0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78	2	53	69	36	38
무급가족종사자	-59	-0	-6	-7	0	22	
성별	남성	79	236	175	339	18	256
	여성	121	150	241	186	169	340
연령별	20~24세	-26	5	75	21	74	41
	25~29세	-53	-26	-97	-1	-147	37
	30대	21	1	26	21	-45	-55
	40대	23	56	36	39	26	155
	50대	164	214	212	259	172	185
	60세 이상	51	113	164	180	102	238
산업별	음식숙박업	-47	-36	53	-10	41	133
	보건 및 사회복지	155	158	88	113	71	218
	공공행정 등	-71	-9	-0	-49	-43	71
	전문·과학 등	40	77	67	67	49	-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2] 서비스업 성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서비스업 고용은 장기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숙박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에서 고용 증가
 - 2013년 11월 현재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218천 명 증가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은 여성 근로자의 보건 및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이나 의료보조직 등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Care Service)에 집중. 이 산업에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2012년 8월부터 지속되고 있어 기업형태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반영
 - 11월 고용증가폭이 확인했던 음식숙박업은 상용직, 임시·일용직의 고용증가뿐만 아니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고용증가에 기인. 이 산업에서는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20대 연령층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50대 연령층에서의 고용이 증가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에서 고용이 전년동월대비 71천 명 증가하는 등 5개월 연속 고용증가. 특히 이 부문의 신규채용은 활발하지 않았으나 상용직과 일용직의 신규채용은 전년동월대비 6천 명 증가

〈표 18〉 음식 및 숙박업의 특징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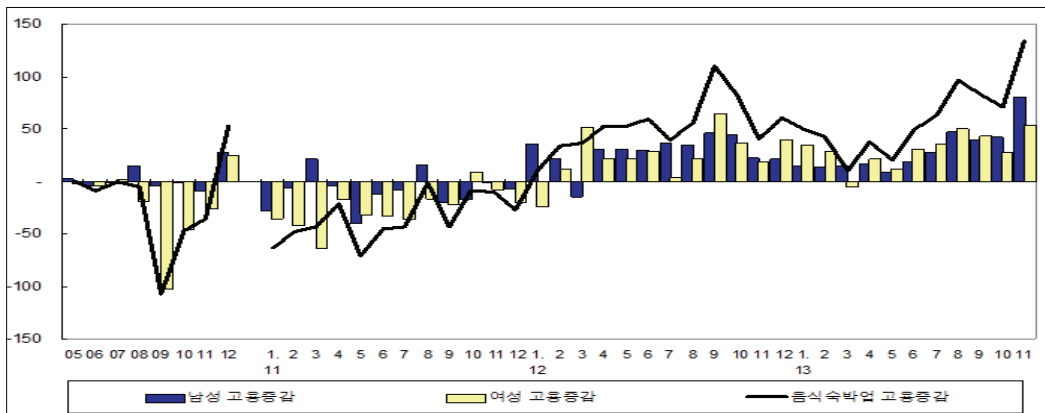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11	2012. 11	2013. 11
음식숙박업 취업자 전체		-47	-36	53	-10	41	133
지위별	임금근로자	31	-40	16	-93	60	115
	상용직	26	25	5	4	30	42
	임시직	45	-58	39	-93	63	58
	일용직	-40	-8	-28	-4	-32	15
	비임금근로자	-78	4	37	83	-20	18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17	9	25	42	-0	-16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33	-3	2	20	-15	15
성별	무급가족종사자	-28	-2	10	21	-5	20
	남성	-2	-9	28	-2	23	80
연령별	여성	-46	-26	25	-8	18	53
	20대	19	-17	32	-35	46	80
	임금근로자	22	-20	34	-34	47	73
	30대	-10	-12	3	-9	-1	-2
	40대	-48	-41	-36	-32	-26	-10
	50대	-10	9	36	38	7	54
	자영업자	-13	-7	8	21	-12	27
신규채용 (20~30대)	60세 이상	-5	11	22	18	17	18
		-5	-10	-3	-11	-41	35
		-8	-11	2	-2	-29	3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3] 음식숙박업의 성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9〉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특징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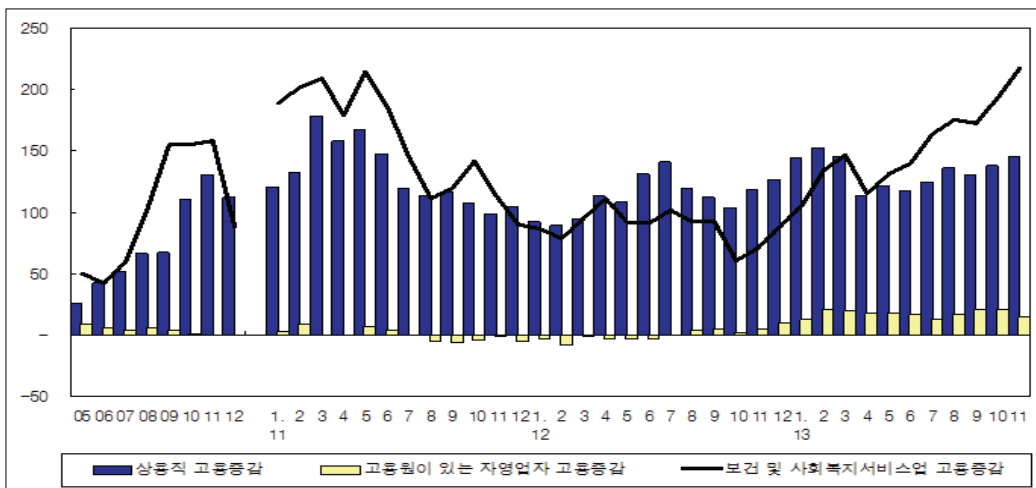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11	2012. 11	2013. 1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5	158	88	113	71	218
지위별	임금근로자	151	155	90	112	71	204
	상용직	110	130	112	99	119	146
	임시직	40	29	-16	21	-41	56
	일용직	1	-4	-7	-8	-6	2
	비임금근로자	4	3	-2	1	-0	14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1	-0	0	-1	4	14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2	0	-2	-2	-2	-1
	무급가족종사자	1	3	-0	3	-2	0
성별	남성	6	19	13	11	12	62
	여성	149	140	75	102	59	156
	50~60세 이상	51	38	32	42	13	98
연령별	20대	16	35	2	6	3	25
	30대	35	18	31	15	37	14
	40대	44	53	10	31	9	62
	50대	36	39	26	48	4	44
	60세 이상	20	12	17	8	16	77
직종별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73	102	79	83	79	10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6. 지역별 고용 상황

◎ 고용률 등 취업활동은 지역별 편차가 있음

- 광역시도의 2013년 11월 고용률은 제주도(66.6%), 충청남도(64.0%), 경상북도(63.2%)가 높고 부산(56.0%), 강원도(57.0%), 울산(58.1%)과 광주(58.1%)가 낮게 나타남
-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는 경기도(6,149천 명), 서울(5,156천 명), 부산(1,654천 명) 순으로 많고, 제주도(311천 명), 울산(543천 명), 강원도(714천 명) 순으로 적게 나타남
- 광역시도의 2013년 11월 실업률은 인천(3.7%), 서울(3.6%), 대구(3.2%)가 높고 전라북도(1.0%), 제주도(1.6%), 강원도(1.6%) 순으로 낮아 대부분의 광역시 지역이 도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0〉 지역별 고용지표(2013년 11월 기준)

(단위: %, 천 명)

시도별	고용률	취업자 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계	60.4	25,530	62.1	2.7
서울특별시	60.6	5,156	62.8	3.6
부산광역시	56.0	1,654	57.8	3.1
대구광역시	58.2	1,207	60.1	3.2
인천광역시	61.0	1,452	63.4	3.7
광주광역시	58.1	725	59.6	2.5
대전광역시	58.7	751	60.2	2.4
울산광역시	58.1	543	59.6	2.5
경기도	61.2	6,149	62.6	2.3
강원도	57.0	714	57.9	1.6
충청북도	61.9	807	63.2	2.0
충청남도	64.0	1,176	65.6	2.4
전라북도	59.1	893	59.7	1.0
전라남도	61.7	917	63.0	2.1
경상북도	63.2	1,423	65.1	3.0
경상남도	60.9	1,653	62.0	1.8
제주도	66.6	311	67.6	1.6

자료: 통계청, KOSIS(경제활동인구조사).